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7-73
<https://doi.org/10.29212/mh.2024..13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蛟龍山城의 修築과 運營의 實際

- 『南原縣公事』를 중심으로 -

이경석 | 남원시청 관광시설사업소 학예연구사

- 목 차
1. 머리말
 2. 교룡산성 修築의 추이
 3. 교룡산성의 軍事 編制 및 軍器
 4. 교룡산성 운영의 실제
 - 가. 산성 수축 절차의 검토
 - 나. 산성 經營의 문제
 - 다. 그 밖의 산성 수호의 검토
 5. 결론

초 록 조선후기 남원은 내륙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고대 관방시설로서 주목을 받아 왔고, 조선후기에는 교룡산성이 여러차례 수축되었다. 본고는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관하여 군사사적 측면에서 군사편제와 규모,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을 고찰하고자한 글이다. 조선전기에 퇴락하였던 남원의 교룡산성은 선조 27년(1594) 처영에 의해 수축되었다. 그 후 국방위기에 따라 숙종대에 산성은 2차례 대대적으로 수축되었고, 수성장은 지방 수령이 겸하여 지역 수호의 거점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군기와 집물은 차례로 갖춰졌다.

18세기 교룡산성의 군사편제를 보면 수성장겸부사(守成將兼本府使), 별장(別將) 1명, 승장(僧將) 1명, 대장(代將) 1명, 수첩군관(守堞軍官) 500명, 군병 1천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8세기 전기 교룡산성의 군병은 1천여명 정도였으나 그 성격은 속오군이였다. 이는 전라도 군현 중 남원 본현과 속현인 인군의 곡성, 구례에서 총원된 보인(保人)이였다. 교룡산성의 속오군은 실제 군역에 종사하는 군인이 아닌 납포군이였다. 산성 유지를 위한 재정원이었던 것이다.

산성 운영의 실제에서는 첫째, 산성 수축의 과정에서 관찰사와 수령의 갈등이 문서 행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산성의 경영에 있어 남원현 수령과 별장의 관계, 군기와 집물 보수의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산성 수호의 실제, 즉 입번(入番)의 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 산성인 교룡산성의 운영 실제를 고찰함으로써 여타 지방 산성 운영의 이해를 돕는 사례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蛟龍山城, 南原縣公事, 山城 運營, 修築, 軍器

1. 머리말

본 논고는 조선후기 남원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¹⁾ 기존 산성 연구는 관방시설의 현황 및 조사에서 기능적, 역사적 측면으로, 그리고 중앙 중심에서 지방사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지역 산성 수축과 운영의 실제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룡산성은 남원의 대표적 산성이며, 읍치로부터 서북쪽으로 5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옛 산성으로 조선시대에는 호남 인근 성 중에 제일(第一)이며, 영호남의 인후지지(咽喉之地)에 위치한 방비가 견고한 성으로 잘 지켜야 하는 요새²⁾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동문(東門)을 비롯하여 성곽의 일부 구간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교룡산성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 매우 드물어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³⁾ 교룡산성

-
- 1) 나경준, 「조선 숙종대 관방시설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차용길,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中原文化財研究』 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황부연,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운영의 재정구조」,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 『龍城誌』 城郭 蛟龍山城
- 3) 강원중, 「남원지역의 산성 소고」, 『연구논문집』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김세중, 「남원 교룡산성의 변천 과정과 고고학적 가치」, 『선사와 고대』 70, 한국고대학회, 2022.

에 대한 관심도 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관련하여 남원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다룰 때 일부 언급되는 정도였고 고고학 측면에서의 성과라면 지금까지 산성의 북문지(北門址)와 군기터 발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⁴⁾ 이곳에서 삼국시대 기와 등이 확인되었고, 발굴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본 논고의 연구 자료는 고지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관찬 사서 및 『용성지(龍城誌)』를 비롯한 남원 관련 각종 읍지, 그리고 보첩류(報牒類) 자료 등이다. 위 자료의 검토를 통해 산성 수축의 추이와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군사사(軍事史) 측면에서는 조선후기 교룡산성의 위상을 파악하고, 지역 산성 운영의 실재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지방 사회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산성에 대한 사료를 검토하고, 교룡산성 수축의 추이, 산성의 규모, 병력의 편제 및 군기의 규모, 산성 운영의 실제 측면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룡산성 修築의 추이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고지도를 보면 교룡산성은 남원의 읍치 서북쪽에 그려져 있는데, 이 산성은 해발 518m인 험준한 교룡산을 에워싼 것으로 둘레는 3.1km 가량이다.

4)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남원 교룡산성 군기터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傳 군기고터 건물지 1차 발굴조사』, 2019.

성을 처음 쌓은 내력은 분명치 않으나, 그 터와 형식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그 후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축성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정확한 초축 시기를 전하는 기록은 없으며, 고고학적 발굴도 미진한 상황이어서 창건 시기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 침공 시 검교(檢校) 유인궤(劉仁軌)를 검교 대방주 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근거하여 유인궤가 남원에 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성이 교룡산성인지는 확실치 않다.⁵⁾

교룡산은 산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유사시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였다. 임진왜란 때 승병대장 처영(處英)이 산성을 고쳐 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고 하는데, 교룡산성의 축성과 수축에 관한 사서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이 있으며 각 사서에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교룡산성 수축 관련 주요 기록⁶⁾

사 료	내 용	비고
고려사절요 제31권 1380년(우왕 1)	왜적이 南原山城을 공격	

5)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南原都護府 古跡 劉仁軌城에 ‘지금 부의 치소(治所)이니 둘레가 몇 리나 되는데 옛 터가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남원 읍성을 유인궤가 쌓았다고 보기도 한다.

『龍城誌』 古跡 舊志 劉仁軌城 및 井田遺基의 기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이 있다. 그러나 『龍城誌』 성곽 구지 교룡산성에서는 유인궤성이 아니라고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6) 남원시·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남원 교룡산성 종합정비계획』, 2013.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傳 궁기고터 건물지 1차 발굴조사』, 2019.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2월 29일	慶尚道·全羅道 여러 고을에 山城을 수축, (그중 하나가) 南原府의 蛟龍山城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7일	山城 수축도 백성을 보전하는 방도인데 南原山城은 그 역사를 중 지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9일	남원산성을 義僧將 處英에게 승병을 거느리고 형편에 따라 수축하게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6월 18일	정유재란 당시 당나라 장수 楊元이 산성의 군기와 군량을 본성으로 옮겨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1월 23일	전라 감사 민진원이 교룡산성의 修繕을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승정원일기 1704년(숙종 30) 9월 10일	李濡 등이 입시하여 교룡산성의 수축에 대해 논의하다	
승정원일기 1705년(숙종31) 6월 9일	정유난에 당장 양원이...적이 城 점거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철거하여.../ 보수하여 사찰 등 여러 건물을 세울 것, 수첩군관 5백명 良役 총당 건의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712년(숙종38) 6월 14일	南原府의 교룡산성을 重修하고 府使를 守城將으로 삼으라 명함	
교룡산성중수비 1712년(숙종 38)	임진년(숙종38, 1712) 부사 李聖漢이 교룡산성을 중수하자는 狀啓를 巡營의 觀察使 柳鳳輝에게 올려 청하였다. 이 해 9월부터 필요한 양곡과 군사를 모으고 修築하기 시작하여 계사년(숙종 39, 1713) 5월에 공사를 마쳤다. 4면을 모두 고쳐 쌓으니 그 길이가 합 552파(把)였다. 西門은 고쳐 만들고 東門은 虹蜺로 새로 만들었다.	
승정원일기 1731년(영조 7) 9월 25일	교룡산성 수축 건으로 加資	

관련 사료들을 보면 처음 기록은 고려말 왜구와 관련하여 ‘남원산성(南原山城)’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며, 이후 교룡산성에 대

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수 나타난다. 먼저 조선 초기 태종 때 교룡산성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⁷⁾, 이후 선조 대에 전란과 관련해 다시 기록이 보인다. 1594년 승장 처영이 교룡산성을 수축하였으나⁸⁾, 1597년 명나라 장수 양원에 의해 산성은 철거된다.⁹⁾ 즉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은 본성(本城, 南原城)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고집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본성을 수축한 후 일본군과의 전투에 대비하는 동시에 교룡산성의 군기와 군량을 모두 철수시키고, 적이 교룡산성을 점거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철거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¹⁰⁾ 무엇보다도 교룡산성에 대한 언급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와 연관하여 집중되고 있으며, 남원성이 함락된 후 조정에서는 왜 교룡산성에 근거하여 전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의 논의가 벌어지는 지경이었다.¹¹⁾

그 뒤 18세기 초 숙종 대 교룡산성의 수축이 두 차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숙종 대 북방으로는 청나라에 의한 위기 고조와¹²⁾ 함께 남쪽으로는 해적의 약탈로 호남과 연해 포구 등이 약탈을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¹³⁾ 조정을 긴장시키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대비로서 숙종은 전국 주요 거점의 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케 하였고, 교룡산성도 이에 따라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숙종 대 산성의 첫 수축 과정을 살펴보면 1704년에 수

7)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2월 29일

8)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9일

9)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6월 18일

10)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6월 9일

11)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8월 18일

12) 하우범·복기대, 「『영고답회귀설』로 살펴본 18~19세기 조선의 서북 경계」, 『몽골학』 70, 2022.

13)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5월 17일

축 논의가 나타나는데, 1월 23일에 전라감사 민진원(閔鎭遠)이 숙종에게 장계를 올려 교룡산성의 형편을 알리고 수선(修繕)할 것을 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는다¹⁴⁾. 그러나 왕의 허락은 얻었으나 바로 산성의 수리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시 조정의 의논이 일었던 듯하다. 민진원이 장계를 올린 후 한참이 지난 9월 10일에 우의정(右議政) 이유(李濡)가 전라감사 민진원의 장계에 대해 왕에게 아뢰어 그의 장계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숙종은 그의 주장대로 할 것을 허락한다.¹⁵⁾ 이후 산성의 수리는 다음 해인 1705년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1705년 6월 9일 강화유수 민진원의 계에 “... 신이 교체되어 돌아온 뒤 이미 모두 수축되었다고 하니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당시 수선은 산성 외곽 중심의 공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수축은 1712년에 시작되어 1713년에 마무리되었다. 당시 교룡산성은 다시 큰 파손을 당하여 긴급히 수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1712년 6월 14일 숙종은 교룡산성을 중수하도록 하고 부사(府使)를 수성장(守城將)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¹⁷⁾ 당시 남원부사는 이성한(李聖漢)이었고, 전라감사는 유봉휘(柳鳳輝)였다. 중수의 과정을 보면 1712년 9월부터 필요한 양곡과 군사를 모으고 수축을 시작하여 다음 해 1713년 5월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의 규모는 산성의 동서남북 4면을 모두 고쳐 쌓았는데 그 길이는 552파(把)였다. 또한 서문(西門)은 고쳐 만들었고 동문(東門)은 홍예(虹蜺)로 새로 만들었다.¹⁸⁾ 당시 교룡산성의 중수를 기록한 산성중수비가 산성의 동

14)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1월 23일

15)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9월 10일

16)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6월 9일

17)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12년(숙종 38) 6월 14일

문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다.

그 이후에도 산성의 수축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나 『승정원일기』에서 1731년 영조 때 교룡산성 수축의 공이 있는 한량(閑良) 남민석(南震錫)을 특별히 가자(加資)하라는 영조의 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 기록에 근거한다면 산성의 수축은 영조 대에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3. 교룡산성의 軍事 編制 및 軍器

조선 초기의 기록과 『여지도서』, 『용성지』 및 각종 『읍지』와 『사례안』 등을 통해 산성의 규모와 군사 편제 및 병력, 군기(軍器)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교룡산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우선, 교룡산성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당시 남원현의 역사, 인문, 지리 등 전반에 대해 기록한 각종 읍지로는 아래 <표 2>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표 2> 18세기 현황 관련 남원 읍지

구분	제 목	시 기	작자	성격	서 지	판본	비 고
1	용성지	1701 - 1752년	사찬	읍지	이도, 최여천 등	목판	
2	여지도서	1760년경	관찬	총지	왕실 주도	필사	
3	남원부읍지	1787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규장각 소장
4	호남읍지_남원	1787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전북대 소장
5	읍지	1791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고궁박물관소장

18) 「蛟龍山城重修碑」 1712년(숙종 38)

19) 『承政院日記』 영조실록 1731년(영조 7) 9월 25일

교룡산성의 시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인데, 이 지리지에는 교룡산 석성의 둘레가 1,125보(步)이며, 성안에 우물이 6개이고, 군창(軍倉)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교룡산성의 둘레는 5,717자, 높이 10자, 성안에는 99개의 우물과 군창이 있다고 하였다.²¹⁾

남원의 대표적 읍지인 『용성지』를 보면 용성지 성곽 구지(舊志)에 교룡산성은 ‘석축 둘레가 5,717척(尺)이고, 높이가 10척이며, 성(城) 안에는 99개의 우물(井)과 하나의 작은 시내(小溪)가 있다. 그리고 군창(軍倉)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용성지』 신증(新增)에 ‘마면(馬面)이 일곱이고, 치첩(雉堞)이 1,016척이며 … 순영(巡營)이 있고, 대나무 밭(竹田)이 두 곳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용성지의 편찬자는 ‘실제 산성의 둘레는 7,600척이라 하며, 지금은 승려들이 말하기를(僧說) 둘레가 15여리(餘里)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그 후 18세기의 기록인 『여지도서』 남원 진보조(鎭堡條)에 따르면 ‘교룡산성은 둘레가 5,717척이며, 높이가 11척’이라 하였고, 수성장은 ‘守成將兼本府使’이라 하여 남원부 부사가 수성장을 겸하며 교룡산성의 편제는 ‘별장(別將) 1명, 승장(僧將) 1명, 감영자벽군관(監營自辟軍官) 2명을 대신한 장(將) 1명, 수성자벽 수첩군관(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이라 하였다. 소속 읍은 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창평(昌平)·장수(長水)이며, 성 안에 사는 승려들은 13명이며, 거주하는 민호(民戶)는 18호(戶)’라 하였다.²³⁾

20) 『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남원도호부

21) 『新增東國輿地勝覽』 남원도호부

22) 『龍城誌』 城郭 蛟龍山城

23) 『輿地圖書』 南原 鎭堡

다음으로 고궁박물관 소장 『읍지』 남원을 보면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 군기 등에 대해 『여지도서』에 비해 상세히 알 수 있다. 먼저 교룡산성은 남원부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며 석축(石築)의 둘레가 2,477보, 높이가 10척, 여첩(女堞)이 1,016처, 성문(城門)은 4개 처라 하였다.²⁴⁾

그리고 교룡산성의 편제를 보면, 별장 1인, 수첩군관(守堞軍官) 311인, 승장 1인, 대장(代將) 1인, 군병은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이라 하였다. 군량미를 의미하는 군향(軍餉)은 미(米)가 5,902석(石) 2두(斗) 5승(升) 8홉(合) 6사(夕)이라 하였다. 그리고 속읍(屬邑)은 곡성이 미(米) 777석(石) 2두(斗) 9승(升) 4사(夕), 구례가 미(米) 804석(石) 5두(斗) 1승(升) 2홉(合) 2사(夕)이라 하였다.²⁵⁾

그리고 편제상의 차이를 보면 『여지도서』는 별장, 승장, 대장, 수첩군관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읍지』는 위 내용에 군병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는 수첩군관을 5백명으로 기록하였다면, 『읍지』에는 수첩군관을 311인이라 하였고, 군병은 1,542명이라 기록하고 있다.

속읍도 『여지도서』는 구례, 곡성, 옥과, 창평, 장수라 하였는데, 읍지에는 곡성, 구례 두 곳을 적고 있다. 그리고 성내 거주하는 승려와 민호의 숫자를 보면 『여지도서』 상에는 승려가 13명, 민호는 18호라 하였는데, 1787년 『호남읍지』에는 승려가 47명, 성내 거주하는 민호는 38호라고 기록하고 있어, 승려와 민호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산성의 군사 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 『邑誌』南原 官厄(고궁박물관 소장)

25) 상동

〈표 3〉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와 군병의 수

구 분	여지도서 (1760)	호남읍지 (1787) ²⁶⁾	읍지 (1791) ²⁷⁾	비변사인방안지도 (18c)
守成將兼本府使	1명	1		
別將	1명	1	1인	
僧將	1명	1	1인	
監營自辟軍官2명 代身 將	1명	1	1인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5백명	311인	5백명
軍兵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	

위 자료를 근거로 편제를 살펴보면 산성의 수성장(守성장)은 부사(府使)가 겸했으며, 별장 1명, 승장 1명, 대장(代將,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1명, 성을 수비하는 수첩군관 500명, 군병은 1,54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794년(정조 18)의 『군국총목(軍國總目)』에서는 교룡산성의 군총(軍摠)은 2,103명 내(內)라고 하고, 그 군사편제를 ‘별장 1인, 천총(千摠) 1인, 파총(把摠) 2인, 초관(哨官) 12인, 지곡관(知穀官) 2인, 기고관(旗鼓官) 2인, 기패관(旗牌官) 24인, 수첩군관 500인, 병방(兵房) 1인, 감관(監官) 8인, 수직군(守直軍) 7명, 승대장(僧代將) 3명, 군졸 1,540명’이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²⁸⁾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룡산성의 규모 및 시설 등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자료가 18세기 중반의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이다. 이 지도에는 교룡산성의 둘레가 5,171척, 높이가

26) 교룡산성의 기록은 『湖南邑誌』 남원(전북대 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南原府邑誌』(奎1740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내용이 동일하다.

27) 『邑誌』 남원(고궁박물관 소장)

28) 『軍國總目』(奎12195) 軍摠에서 守城將卒이 63명, 納布軍官 500인, 作隊軍卒 1,540명이라 하였다.

10척, 곡성(曲城)이 7처, 여첩(女堞)이 1,016처, 치첩(雉堞)이 1,016처, 포를 쏠 수 있게 성벽에 뚫은 구멍인 포혈(砲穴)이 1,088혈, 방축(防築)이 2, 우물(泉)이 99개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성 내 시설물로는 장대(將臺) 3칸, 염산(塩山)이 2칸, 사찰이 1, 별장아사(別將衙舍)가 8칸, 승장청(僧將廳)이 10칸, 군기고(軍器庫) 8칸, 군향고(軍餉庫) 20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산성 내에 곡성의 군량미 약 701석을 보관하는 고사(庫舍)가 10칸, 군기고 2칸, 그 외 구례의 군량미 약 598석을 보관하는 고사 4칸과 군기고 3칸이 있다고 하였다.²⁹⁾

위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교룡산성 내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 별장아사, 승장청, 군기고, 군향고, 사찰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성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군량미를 비축하고 군기를 보관유지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룡산성의 규모와 편제 등 비교

구분	여지도서 (1760)	용성지 (1701~1752)	호남읍지 (1787) ³⁰⁾	읍지 (1791) ³¹⁾	비변사인방안지도(18c)
둘레	5,717척(尺)	5,717척(尺)	5,717척(尺)	2,477보(步)	5,171척(尺)
높이	11척	10척	10척	10척	10척
편제	守成將兼本府使 別將 1명 僧將 1명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將 1명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守成將兼本府使 別將 1명 僧將 1명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將 1명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別將 1인, 守堞軍官 311인 僧將 1인 代將 1인 軍兵 三局 保人 1,542명	守堞軍官 5백명

29) 비변사인방안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

속읍	求禮, 谷城, 玉果, 昌平, 長水		求禮, 谷城, 玉果, 昌平, 長水	谷城, 求禮	
군량미				5,902石2斗 5升8合6勺 곡성 米 777石 구례 米 804石	4,199石3斗9升4勺4里2分 곡성 米 701石3斗3升6合 구례 米 598石
시설		馬面 7 雉堞 1,016 巡營 軍倉 우물 99 작은 시내 1		女堞 1,016 처 城門 4처	曲城 7처 女堞 1,016처 雉堞 1,016처 砲穴 1,088혈 防築 2 泉 99개소 將臺 3칸 塩山 2칸 寺刹 1 別將衙舍 8칸 僧將廳 10칸 軍器庫 8칸 軍餉庫 20칸 谷城 庫舍 10칸 谷城 軍器庫 2칸 求禮 庫舍 4칸 求禮 軍器庫 3칸 僧房 ³²⁾ 醬庫 ³³⁾
기타	성내 僧侶 13명 성내 民戶 18戶		居僧 47명 居民 38戶		

30) 교룡산성의 기록은 『湖南邑誌』南原(전북대 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南原府邑誌』(奎1740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내용이 동일하다.

31) 『邑誌』 남원(고궁박물관 소장)

32) 『南原縣公事』 1736년 2월 초9일

33)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그리고 교룡산성의 군기(軍器)를 살펴보면 교룡산성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군기란 군의 기물(器物)로 전쟁에 쓰이는 무기류나 도구를 의미하며, 종류로는 무기류, 군악기, 깃발, 군용 도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룡산성의 군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1791년 『읍지』가 비교적 상세하다. 용성지에는 읍성 내 군기청(軍器廳)이 있다고 하였는데, 읍지를 살펴보고, 이웃 군현인 곡성·구례 등과 여타 산성과도 비교하여 산성의 군기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1791년 『읍지』의 교룡산성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黑角弓) 121장(張), 교자궁(交子弓) 274장, 궁현(弓鉉) 405개(箇), 궁가(弓家) 405개, 궁룡(弓籠) 3건(件), 장전(長箭) 639부(部), 시룡(矢籠) 9건, 조총(鳥銃) 81명(柄, 자루), 화약(火藥) 1,600근(斤), 연환(鉛丸) 59,455개, 환도(環刀) 2명(柄), 통아(筒兒) 205개, 남비개(南飛蓋) 66개, 이약통(耳藥桶) 66개, 화철(火鐵) 66개, 화승(火繩) 198사리(沙里), 약승(藥升) 66개 등 모두 17종이다.³⁴⁾

읍성의 군기에 대해서는 『용성지』와 1791년 『읍지』에 기록이 보인다. 먼저 『용성지』 공서조 신증을 보면 읍성의 군기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흑각궁 469장, 상각궁(常角弓) 917장, 교자궁 85장, 장전 1,274부 27개(介), 편전(片箭) 605부 25개, 통아 760개, 등자유조총(騰子鑰鳥銃) 6자루(柄), 정철조총(正鐵鳥銃) 1,704자루, 정철삼혈조총(正鐵三穴鳥銃) 6자루, 행고(行鼓) 18건, 나팔(喇叭) 3쌍, 동구(銅口) 1건, 소쟁(小錚) 15건, 편곤(鞭棍) 122자루, 거마조(拒馬祚) 156좌(坐), 중군대기치(中軍大旗幟) 1면(面), 삼지창(三枝槍) 36자루, 능철(菱鐵) 18,070개, 창도(槍刀) 1쌍, 발라(哮囉) 5건, 명라(鳴囉) 1건, 철갑주(鐵甲冑) 각 12부, 화약 113근, 연환 23,000개 등 모두 24종이다.³⁵⁾

34) 『邑誌』 關陞 軍器(고궁박물관 소장)

35) 『龍城誌』 公署 軍器

그리고 1791년 『읍지』에 기록된 읍성의 군기를 보면 장편전룡(長片箭籠) 24건, 통아 989개, 정철조총 1,842병, 천보총(天步銃) 64병, 정철삼혈총 6병, 승자유조총(勝字鎗鳥銃) 6병, 조총찬혈찬(鳥銃鑽穴鑽) 2개, 삼지창 28병, 담쟁(擔鎗) 1쌍, 남비개 1,802건, 기가피(旗家皮) 91개, 화철 254개, 연환 584,324개, 행고 29좌, 대정(大鉦) 2건, 소쟁 16건, 동구 1건, 명라 1건, 발라 5건, 나팔 3쌍, 태평소(太平簫) 1쌍, 철갑주(鐵甲冑) 각 20건, 화승 5,328사리, 이약통 1,756개, 약승 48,270개, 능철 18,177개, 화약 9,039근 7냥 7전 8푼, 장막(帳幕) 185건, 구죽철말휘장(具竹鐵抹揮帳) 24건, 동로구(銅爐口) 185좌, 구아리금환도(具阿里金環刀) 2,517병, 편담(扁擔) 185개, 부자(斧子) 185개, 초자(鋤子) 185개, 철등(鐵燈) 324건, 편곤 122병, 거마조 171기, 인기(認旗) 23면, 령기(令旗) 10면, 순시기(巡視旗) 10면, 신기(神旗) 17면, 고초기(高招旗) 8면, 총기(摠旗) 58면, 대장기(大將旗) 173면 등으로 총 44종이다.

이에 반해 같은 『읍지』에 곡성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 23장, 교자궁 52장, 장전 62부, 편전 25부, 통아 22개, 환도 1자루, 연환 1,805개, 조총 1자루, 남비개 1개, 이약통 1개, 화승 3사리, 화철 1개 등 총 12종이다. 그리고 구례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 30장, 교자궁 45장, 장전 63부, 편전 2부, 통아 20개, 연환 1,805개, 환도 1자루 등 총 7종이다.³⁶⁾

또한 용성지 공서 금성산성(金城山城) 군기를 보면 담양의 금성산성 내 군기의 규모를 볼 수 있는데, 흑각궁 230장, 교자궁 115장, 장전 270부, 편전 125부, 통아 80개, 환도 2자루, 연환 12,000개, 조총 1자루 등 총 8종이다.³⁷⁾

36) 『邑誌』 關陞 軍器(고궁박물관 소장)

37) 『龍城誌』 公署 金城山城 軍器

곡성현과 구례현의 군기의 종류와 수량은 1791년 읍지인 남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고궁박물관 소장 곡성현과 구례현 읍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곡성현의 군기를 살펴보면 장전 86부 11개, 편전 81부 18개, 흑각궁 18장, 교자궁 68장, 궁현 8개, 통아 82개, 창도구(槍刀具) 26병, 거마조 41병, 능철 2,430개, 능철관승(菱鐵串繩) 233파(杷), 삼혈총 1병, 대고(大鼓) 2좌, 쟁(鐙) 1좌, 행고 2좌, 편곤 22병, 수은갑주(水銀甲冑) 1건, 정철조총 353병, 왜조총(倭鳥銃) 3병, 천보조총(天步鳥銃) 16병, 평조총(平鳥銃) 70병, 남비개 106개, 화승 318사리, 이약통 106개, 화약 2,022근 15냥 8전 6푼, 연환 1,805개 등으로 총 15종이다.³⁸⁾

그리고 구례현의 군기를 살펴보면 상각궁 7장, 흑각궁 58장, 교자궁 207장, 황각궁(黃角弓) 20장, 궁현 130개, 별대전(別大箭) 7부, 편전 58부 15개, 통아 278개, 삼혈총 6병, 삼지창 1좌, 중고(中鼓) 2좌, 장전 341부, 유라도(柳羅韜) 3좌, 면포후(綿布幘) 1건, 능철 700개, 거마조 40좌, 행고 1좌, 소쟁 1좌, 철갑주 1건, 편곤 20병, 혁갑주(革甲冑) 1건, 화철 126개, 수철환(水鐵丸) 16,523개, 남비개 76개, 소고 1좌, 이약통 91개, 화약 1,711근 6냥 3전, 연환 15,775개, 화승 398사리, 정철조총 311병, 천보조총 16병, 환도 13병, 나팔 1쌍, 면포소후(綿布小幘) 1건, 순시(巡視) 1쌍, 령기 1쌍 등 총 36종이다.³⁹⁾

위 내용을 정리하면 각 현(縣)의 군기 규모를 비교할 때 남원 읍성이 군기의 종류나 규모에서 교룡산성이나 곡성현, 구례현, 담양 금성산성 등에 비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흑각궁, 교자궁, 궁현, 궁가, 장전, 편전, 삼지창, 능철, 조

38) 『邑誌』 곡성현(고궁박물관 소장)

39) 『邑誌』 구례현(고궁박물관 소장)

총, 통아, 화약, 연환, 화철, 화승, 약승, 행고, 나발 등 각종 악기, 납비개, 이약통, 각종 군용 도구 등에서 수량이 가장 많고 종류도 51종에 달한다.

그리고 용성지의 기록과 1791년 읍지의 기록을 보아도 그 수와 종류가 매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조총의 종류나 수량, 화약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남원읍성의 군기의 수량이 교룡산성이나 곡성, 구례, 금성산성 등에 비해 종류와 수량에서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룡산성의 군기의 종류는 17종으로, 구례현과 비교하면 구례현이 정철조총을 비롯해서 모두 36종의 군기를 기록하고 있어, 군기의 종류가 교룡산성의 종류보다 2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으나, 교룡산성의 군기 중 흑각궁, 교자궁, 궁현, 궁가, 장전, 연환 등이 구례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화약은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곡성현 및 담양의 금성산성 등과 비교한다면 교룡산성의 군기가 상대적으로 종류나 수량에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 비교를 통해 남원읍성과 교룡산성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⁴⁰⁾

40) 『龍城誌』 建置沿革 舊志 鎭管 都護條에 속현 9곳이라 하여 임실, 무주, 곡성, 진안, 용담, 옥과, 운봉, 창평, 장수라 하였고, 新增에는 軍卒은 곡성, 옥과, 운봉, 창평, 장수, 구례 6읍이 남원부에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관방체계가 진관체제에서 영장체제로 바뀌면서 소속 읍이 변화했음을 이와 같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4. 교룡산성 운영의 실제

가. 산성 수축 절차의 검토

지금까지 교룡산성의 연혁과 수축의 추이, 교룡산성의 규모와 편제 및 군기의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어떠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사료로 『남원현공사』와 『남원현첩보이문성책』이 있다.⁴¹⁾ 위 보첩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산성의 실제 운영상에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산성의 수축 과정이 어떠한 문서 행정적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군기(軍器) 유지의 문제, 산성 수호의 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숙종은 당시 남원부사를 수성장으로 삼아 산성의 수축을 명한 바 있었다. 그리고 두 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기술하였다. 이후 영조 대에도 수축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수선은 진행되었다. 숙종 대의 수축에도 불구하고 교룡산의 지세가 험하여 산성을 견고하게 쌓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었던 듯하며,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산성이 자연적 재해를 입어 파손되거나 ‘비가 오면 (죽죽) 흙이 허물어짐으로써’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⁴²⁾

먼저 산성의 피해 상황을 보면 1734년(영조 10)에 산성 4면의

41) 『南原縣公事』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K2-3639)이며, 『南原縣牒報移文成冊』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규25033, 규26030)이다. 이하에서는 위 두 자료를 중심으로 교룡산성 운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검토하겠다. 또한 남원부는 당시 현으로 강등된 상태였으므로 이하 남원현으로 표기한다.

42)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체성(體城) 141파(把) 반(半), 여첩(女堞) 34파가 우수(雨水)에 무너졌으며, 1735년에는 봄이 되자 얼음이 풀리며 체성 2곳 40파에 더해 여첩 33파가 무너졌다.⁴³⁾ 그리고 다음 해인 1736년에는 피해가 더욱 누적되었다. 전년 여름철에 남원현은 여러 차례 장마를 겪으며 산성의 성벽 등이 무너져 나가, 그 규모가 3백파(把) 정도에 달하였는데 제대로 수리를 못하였고, 1736년 그때까지의 피해 상황을 척량(尺量)하니 산성의 피해 규모가 ‘동문에서 남문까지 무너진 곳은 1곳인데, 길이는 7파, 남문에서 서문까지 무너진 길이는 95파, 여첩은 무너진 곳이 15곳, 길이는 34파, 서문에서 북문까지 무너진 곳은 17곳으로 77파 반이고, 여첩은 무너진 길이가 4파, 북문에서 동문까지 무너진 곳은 14곳인데 길이가 62파, 도합 체성이 241파 반, 여첩은 38파’라고 남원현 감은 병영에 보고하였다.⁴⁴⁾

즉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남원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병영에 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성 보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병영에 알리고 있다. ‘산성의 수선은 임자년(1732년) 가을에 무너졌던 산성 140파를 보수했던 전례에 의거하여 본읍에 소속된 승군 2백, 곡성의 승군 1백, 구례에 소속된 승군 1백, 도합 400여명을 동원하여 보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순영의 관찰사에게(도) 논보하겠다’고 병영에 보고를 올렸다.⁴⁵⁾

43)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 本縣蛟 龍山 城四面體城一百四十一把半女堞三十八把昨年雨水後頽破…縣監親往摘奸則前日摘奸尺量者外體城兩處四十把頽破是遣女堞之間間頽破者合爲三十三把是乎

44)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自東門至南門一處七把自南門至西門九十五把女堞三十四把十五處自西門至北門十七處七十七把半女堞四把自北門至東門十四處六十二把合體城二百四十一把半女堞三十八把是乎

45)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당시 남원부는 부(府)에서 현(縣)으로 읍호가 강등된 상태였으며, 당시 현감은 박용수(朴龍秀)였다.⁴⁶⁾ 그가 병영에 보고를 올리기 전 ‘비변사 관문에 근거한 관찰사의 관문’이 도착한 상황이었고, 내용은 ‘산성의 성첩이 무너졌거나, 수축했는데 튼튼하지 않으면 엄히 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었다.⁴⁷⁾ 이런 정황이 어우러져서 그는 일을 서두른 듯하다. 즉 군현에 있어서는 산성수호의 담당자인 별장(別將)이 있었음에도 당시 수령에게 산성 수호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남원현감은 병영에 보고 후 8일 뒤, 정월 18일에 같은 내용으로 순영에 보고를 올리면서 위 보고 내용과 수축 계획과 같이 순영은 관문을 함께 곡성과 구례에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편비를 보내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후 병영에 관문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주었다.⁴⁸⁾

여기까지가 남원현감이 양영(兩營, 兵營과 巡營)에 올린 산성의 피해 상황과 수리 계획에 대한 보고이다. 피해 보고 이후 진행 절차를 본다면 전해인 1735년의 기록이 자세하다.

다시 1735년의 산성 피해 상황에 대한 살펴본다면, 당시 병영

46) 읍호 강현(降縣)의 사유는 萬北寺掛書事件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이 궤서사건에 대한 연구로는 조운선의 논문이 있다. 만복사는 萬北寺, 百福寺라고도 불리었는데 지금은 폐사지이다.

조운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궤서 사건의 정치적, 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2008.

현감의 명단은 다음 자료가 있다.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전북편-』, 전라문화연구소, 1995, 57~65쪽

박용수의 재임기간은 1735년 6월부터 1737년 8월까지였고, 또한 당시 순영의 관찰사로는 서종옥(徐宗玉)이 1735년 3월부터 1736년 2월까지였고, 그 후 윤득화(尹得和)가 1736년 2월부터 1737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그리고 서종옥 이전 관찰사는 유복명(柳復明)이었다. 그는 1734년 7월부터 1735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47)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48)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18일

에 현감이 보고를 이미 한 이후에 별장의 뒤늦은 보고가 있었다. 즉 봄이 되어서 산성이 더 무너진 정황을 뒤늦게 보고 했고, 현감이 직접 나가 확인해보니 피해 규모는 더 컸던 것이다. 현감이 확인해 보니 무너진 체성이 2곳 40파였고, 추가로 무너진 여첩이 모두 33파였던 것이다.⁴⁹⁾ 이에 현감은 조사한 내용을 기존에 당한 산성의 피해에 더하여 추가 피해 상황을 2월 초2일 동일에 다시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였다. 이에 병영은 당시 산성의 피해 상황 조사를 위해 군관을 파견했었고, 그 보고에 따라 순영에 논보하겠다고 답변을 주었고,⁵⁰⁾ 순영에서는 남원현감의 보고에 대해 비장(裨將)을 보내 피해 상황을 조사케 해야하나 본현은 수성장을 겸하니 친비(親裨)를 보낼 필요가 없이 산성 수축에 들어갈 인부와 물자를 [역부(役夫)와 역량(役糧)을] 잘 헤아려 성책(成冊)을 할 것과 현감이 직접 나가 (감독하여) 실행하라고 답변하였다.⁵¹⁾

즉 현감의 보고를 받은 병영은 군관을 파견하여 산성의 피해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순영에 다시 논보하겠다고 하였고, 현감이 병영에 보고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순영은 비장을 파견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남원 본현이 수성장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성 수축에 필요한 성책을 수정할 것과 현감이 공사를 직접 거행하도록 판단을 내렸다. 현감의 요청대로 순영은 관문(關文)을 곡성과 구례에 보냈음은 물론이다.

이후 2월 29일에 남원현감은 전례에 따라 속읍(屬邑)인 곡성과 구례에 승군(僧軍) 징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곡성과 구례는 산성수축을 위해 필요한 각 1백의 승군을 제대로 뽑아 대기토록 하라는 것이었다.⁵²⁾ 동시에 남원현 또한 승군 2백을

49)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50)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51)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순영에 보고

준비해야 했다.

산성 수축을 위해 현감은 3월 초6일 곡성과 구례에 이문(移文)하기를 ‘산성을 수축하되 튼튼히’ 할 것과 갑인년 「산성절목」에 개축한 곳에 그 해 날짜, 감독한 자의 성명을 적어 넣어 3년 안에 다시 무너질 경우 잘 감독하지 못한 자를 책벌하라 하였음을 주지시킨다.⁵³⁾ 또한 솜씨가 뛰어난 석수 2명씩을 각각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⁵⁴⁾

남원현감은 이와 아울러 산성 수축에 들어가는 비용 추산을 3월 초6일에 순영과 병영에 함께 보고하였다. 일정은 16일까지 두 읍의 역군(役軍)을 인계 받아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과 산성 보수(補修)의 고가(雇價)는, 갑인년(甲寅年, 1734년) 영문에서 내려 준 「산성절목(山城節目)」에 의거하여, 계산한 결과가 백여 석, 승군에게 줄 곡식은 쌀 40여 석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보낸 ‘산성 수축 소홀시 주청하여 엄한 죄로 다스리겠다’는 관문⁵⁵⁾과는 다르게 순영은 남원현감의 이 같은 비용 추산 보고를 받자 곧 바로 ‘농사에 방해’가 되니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도록 공사의 중지를 명했다.⁵⁶⁾

이후 남원현감은 순영의 지시에 따라 ‘산성 성역(城役)을 가을로’ 미루라는 지시를 3월 14일 도착한 패자(牌字)에 의거하여 그 날 바로 곡성과 구례에 이문하였다.⁵⁷⁾

또한 같은 날 남원현감은 순영에서 ‘농사철이라’ 성역 중지 지시를 하였다는 것과 성역이 늦어져 중지된 책임이 남원현에게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를 병영에 보냈다. 즉 순영에 보고한

52)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29일

53)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6일

54)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8일

55)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정월 초10일

56)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6일

57)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14일 곡성과 구례에 이문함

이후 순영에서는 봄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휘가 없었고, 순영에서 파견한 편비(編裨)의 상황 조사 후에도 순영과 남원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도 보고하였다. 또한 현감은 농사철로 인해 성역을 중지시킨 관찰사의 지시에 대해 승군은 농민이 아니며, 가을은 오히려 분주한 때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현감은 상급 기관인 순영의 지시를 따라 속업에 승군 징발의 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병영에 보냈다.⁵⁸⁾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 문서의 왕복을 살펴보면 현감은 수시로 병영에 보고를 했으며, 순영에 보고하기 전 먼저 병영에 문서를 발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현감은 피해 규모에 따른 동원인력의 규모 및 소요 경비의 산출도 아울러 양영(兩營,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병영은 사실 유무와 피해의 규모 등을 따지기 위해 군관을 파견했고, 그 결과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순영도 편비를 보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⁵⁹⁾ 양쪽의 보고가 맞는지를 순영 관찰사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남원현과 순영의 산성 수축 협의가 완료된 후 순영은 관문을 곡성과 구례에 내려 남원현감의 수축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승군 징발을 명했다. 순영의 관문에 의거 남원현감은 두 속현에 이문(移文)하고 3읍이 회동하

58)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14일 병영에 보고함

59)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순영에 보고에서 남원현감이 성역(城役)의 일을 거행토록 지시하면서도 이후 2월 29일까지도 협의를 끝냈던 것으로 보인다. 감영은 그즈음에 구례와 곡성에 승군 동원을 명하는 관문을 발송함으로써 다시 수축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당시 관찰사는 유복명(柳復明)에서 서종옥(徐宗玉)으로 1735년 3월에 교체되면서 산성 수축을 농번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다. 또한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보고에는 순영의 관찰사가 ‘직접 행차하여 순찰하면서 조사하겠다’는 제사(題辭)가 있으나 관찰사는 순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관찰사는 산성 수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듯하다.

여 산성의 각 구역을 나누어 역을 맡도록 추진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관찰사의 교체로 인해,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산성 수축의 중지를 지시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이와 같이 이전에 빈빈히 이루어졌던, 그러나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교룡산성 수축의 행정 절차적 진행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겠다.

나. 산성 經營의 문제

1) 산성 군사 편제의 검토

위에서 남원의 각종 읍지류를 근거로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교룡산성의 수성장은 본현의 수령(守令)이 겸하였고, 별장 1명, 승장 1명, 감영자벽군관 2명을 대신하는 대장(代將) 1명, 수성자벽수첩군관 5백명, 군병은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이었다고 정리하였다.

별장은 조선시대 산성(山城)·도진(渡津)·포구(浦口)·보루(堡壘)·소도(小島) 등의 수비를 맡은 종구품(從九品) 무관직이다.⁶⁰⁾ 『속대전』에 의하면 전라도는 6명이고, 『대전회통』에 의하면 전라도는 7명이라 하였다.⁶¹⁾

별장은 산성 경영의 책임을 맡았던 군관으로 당시 교룡산성 별장은 운영 관찰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추천되어 임명되었던 듯하다. 이로 인해 산성 경영은 그 직임에 적절하지 못한 정실인사(情實人事)에 의한 폐단이 예상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산성을 수호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별장은 수성장이었던

60)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61) 『續大典』 兵典 外官職 全羅道 別將六員增置。○ 格浦, 黑山島, 古突山, 威鳳山城, 笠巖山城, 金城山城。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全羅道 別將七員。從九品。續 增置。○ 黑山島 · 古突山 · 威鳳山城 · 笠巖山城 · 金城山城 · 南固山城, 補加。· 所安島, 補加。○ 格浦, 補革。

남원현 수령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산성의 이상 유무 및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야 했다.⁶²⁾ 그러나 당시 별장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즉 봄이 되어서야 산성이 더 무너진 정황을 뒤늦게 보고 했고, 현감이 직접 나가 확인해보니 피해 규모는 더 컸던 것이다.⁶³⁾ 그리고 별장은 무엇보다도 번을 서는 산성 수첩군관의 직무 관리를 해야 했다.⁶⁴⁾ 그 밖에 수령이 별장에게 내린 지시로는 별장에게 황폐해진 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할 것과 산성 내 민(民)들의 범작(犯斫) 근절, 즉 산성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였다.⁶⁵⁾ 또한 복무 기강을 세워 제대로 일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⁶⁶⁾

그런데 현감이 별장에게 보낸 전령(傳令)을 보면, 산성 번의 교체 입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별장은) 이런 실태를 현고(現告)하여 조치함이 마땅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별장이) 산성 피해를 살피지 않고 보고도 소홀히 한 점, 그 외에도 별장이 산성을 왕래할 때 승려들에게 여(輿)⁶⁷⁾를 요구하여 (가마를) 메게 한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감은 별장에게 산성 내 백성들의 범작(犯斫) 방지하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백성들의 범작이 빈번하였음도 불구하고 별장은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감은 여를 메게 한 것에는 순영에 보고하여 별장을 치죄하겠음과 아울러 번 문제의 폐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62)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14일

63) 상동

64) 상동

65)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2월 초9일

66)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14일

67) 輿는 수레, 마차를 의미하지만 위에서는 가마를 승려들에게 메도록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명했다.⁶⁸⁾ 별장의 업무 태만에 대해 수령은 별장의 교체까지 고려할 만큼 불만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사 측의 인사라 할 수 있는 별장이 현감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을지 의구심이 든다. 현감은 당시 산성별장을 ‘외지인 와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떠나버려’ 산성 수축의 공무를 거행할 틈이 없다고 지적하고, 별장의 근무태도와 성과에 따라 상벌을 엄격히 하여 산성 일에 실효가 있도록 해야 함과 아울러, 처음 규례는 이 지역 사람을 차출하여 정했던 것처럼 ‘이 지역 사람으로 별장을 차출해 줄 것’을 감영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감영은 이런 요구를 바로 거절해 버린다.⁶⁹⁾

또한 감영자벽군관(監營自辟軍官)에서 ‘자벽(自辟)’이란 조선시대, 각 관아의 장(長)이 임의로 추천하여 벼슬을 시키던 일을 말하며⁷⁰⁾ 교룡산성에 감영의 관찰사가 벼슬을 시킨 군관이 2명이었는데 이를 대신하는 장(代將)이 1명, 또한 수성자벽수첩군관이란 수성장(守長)이 임의로 벼슬을 시킬 수 있는 수첩군관으로 정원이 5백인이라는 뜻인데, 원래 수첩군관(守堞軍官)이란 조선시대 수어청(守禦廳), 총융청(摠戎廳) 등의 군영에 속했던 군관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미(米)를 납부하였고, 전시나 변란 시에 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군관인데, 1677년(숙종 3) 남한산성을 수호하는 수어청에서 군관을 설치하였다.⁷¹⁾ 수어청의 수첩군관은 최대 500명이 정원이었고, 대상은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중에 모집하였다고 하는데,⁷²⁾ 이처럼 교룡산성의 산성 수호를 위한 수첩군관 500인의 정원은 수어청의 정원 500인과 같다. 물론

68) 상동

69)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4월 26일

70)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71)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677년 숙종 3년 5월 28일. 1677년(숙종 3) ‘守禦廳에 500명을 정원으로 守堞軍官을 선발’ 하였다고 하였다.

72) 서태원, 수첩군관, 위키실록사전(<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守堞軍官>)

수어청의 수첩군관의 정원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 했음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1791년 『읍지』에는 교룡산성의 수첩군관의 수가 311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수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남원현공사』에 의하면 이 수는 남원현의 수첩군관이고, 나머지 189명은 당시 남원진(南原鎭)의 속읍인 옥과, 창평, 구례, 곡성, 장수 등 5읍에 배정한 인원이었음⁷³⁾을 읍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500인으로 『여지도서』나 『호남읍지』의 500인과 동일한 숫자이다.⁷⁴⁾

그리고 이들 수첩군관의 성격은 군보(軍保)를 겸(兼)한 수첩군관이였다. 그 수는 500명 정원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남원 본현에 311명, 옥과, 창평, 구례, 곡성, 장수 등 5읍에 모두 189명을 두어, 한해에 1차례씩, 5일 동안 산성의 번(番)을 서도록 「절목(節目)」을 만들어 산성을 수호하도록 규칙으로 준수케 하였다.⁷⁵⁾

그러나 실제 군관들은 본래 취지와 규정대로 번을 서게 하는 대신 차사(差使)를 보내 방번(防番)을 고용하여 세운다는 명목으로 1인당 4~5전씩을 거두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번을 대신 서기도 하고, 거두어 들인 방번가(防番價)를 군관들이 다 써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또한 방번가를 거두는 차사들이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⁷⁶⁾

이에 대해 남원현감은 ‘번을 폐지하면 방번가를 거두는 폐단은 없앨 수 있겠지만 번을 서는 것을 빼버릴 수 없으니, (본현과 속현에서) 모든 번가(番價)를 1명당 3전(錢)씩으로 수합하여 산성에

73) 『邑誌』各縣 자료를 조사하면 장수 42, 곡성 42, 구례 42, 창평 21, 옥과는 미상이나 총계가 189명 배정으로 볼 때 옥과도 42라고 추정된다. 이후 18세기말~19세기 자료에도 배정 몫이 보이지 않는다.

74)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75) 상동

76) 상동

보내 성(城) 중 군관들에게 대가를 주어 번을 서게 하도록' 건의를 순영에 올렸고, 이에 순영 관찰사는 '보고가 합당하다' 하고 '소속 고을과 상의하여 시행하라'고 판단하였다.⁷⁷⁾ 이러한 남원현의 군정에 대한 첩보류의 내용은 군역제의 변화상을 그대로 잘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1791년 『읍지』에 기재된 군병 3국보인(三局保人)이란 삼국(三局) 즉,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에 속한 보인(保人)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정에서 남원현의 산성 수호 명목으로 남원현에 배정한 몫이었다.⁷⁸⁾ 이는 정규군이 아닌 속오군(束伍軍)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를 입은 교룡산성의 수축을 위해 '조정에서 급박하게 떼어준 몫'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2) 산성의 군기(軍器)와 집물(什物)의 관리

다음으로 산성의 군기와 집물의 관리 측면을 검토해보겠다. 앞서 관련 읍지를 근거로 산성과 속현의 군기와 집물의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살폈으며, 군기와 집물의 관리 또한 수성장인 수령(守令)이 점검하고 이를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정유재란의 화를 당한 후 모든 기구는 수리하고 모양을 갖추어 갔으나, 이 중 상태가 심한 것이 군기'라고 하면서 이 군기는 '활과 화살은 태반이 훼손되었고, 총약(銃藥)도 대부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⁷⁹⁾ 산성의 무기는 옛적에 다른 산성에서 이관된 것도 많았고, 세월이 흐르며 총포, 활 등의 무기가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이다.

77) 상동

78) 『南原縣公事』 1736년 4월 26일

79) 상동

군기 중 총기의 관리와 수선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있는 현감의 보고로는 1736년 3월 8일 병영에 보낸 것이 있다. 현감이 조사해 보니 총기류 중 조총(鳥銃) 30자루가 철(鐵)만 있고 집(나무 자루)이 없었다. 연유를 파악해 보니 나무가 불에 타거나, 깨져서 손상을 당한 것이었다. 수리를 위해 총집의 재료로 '가시목(柯時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육지에는 없는 것이어서 순영에 요청해 허락을 얻었다. 이에 현감은 다시 병영에 가시목을 요청하였고, 병영에서는 '남당포(南塘浦)에 있는 가시목 4토(吐)를 제급하니 받아 갈 것'이라고 답변을 주었다.⁸⁰⁾ 가시목은 남도의 해안가에 주로 자라며 목재가 매우 단단한 것으로 공구의 자루로 사용되었다. 남당포는 조선시대 강화도에 있었던 포구였다. 이처럼 관내에서 재료를 구해서 수선할 수 없는 경우는 순영과 병영에 요청하여 군기를 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듯 산성 내 군기의 종류와 수량이 많았다는 것은 군기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겠다. 그렇다면 수령은 과연 어떻게 그 비용을 처리하였을까? 이를 알려주는 『남원현공사』의 보고가 있다. 현재는 「절목」 자료가 전하지 않아 각 소요 경비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36년 3월 초10일 보고에 흑각궁 6장, 교자궁 3장, 궁현 8개 등을 수리했고, 그 값이 4종 쌀 2석 10두였다고 한다.⁸¹⁾ 그리고 당시에 「절목」이 있어 군기를 고치는 값이 항식으로 만들어져 「절목」 내에 죽 나열하고 있다⁸²⁾고도 하여 매우 치밀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요 경비의 처리 절차는 먼저 현감이 훼손된 군기물(軍器物)을 수선하고 「절목」에 의거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회외모미(會外耗

80) 『南原縣公事』 1736년 3월 초8일 병영에 보고

81) 『南原縣公事』 1736년 3월 초10일 순영에 보고

82) 상동

米)를 지급한 후 「세말성책(歲末成冊)」 가운데 회감(會減)하는 방식이었고, 그 외에 「절목」에 규정된 값이 없을 경우 「절가성책(折價成冊)」을 작성하여 순영에 보고한 후 순영의 승낙을 받아 일을 처리⁸³⁾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령은 군기 집물의 수량 파악, 군기의 수선을 포함한 유지 관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군기는 수령 교체시 인수인계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실무자인 ‘군기색(軍器色)’을 두어 관리케 했고, 주의를 기울여 수량 및 상태 파악 등 군기를 점검해야 했다.

다. 그 밖의 산성 수호의 검토

또한 『남원현공사』 1736년 9월 초3일 남원현의 감영에 올린 첩보에 의하면 교룡산성의 수호를 위해 의승(義僧)이 입번(入番)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성 내 의승번방(義僧番防)⁸⁴⁾에 대한 사실과 정액 등 그 추이 등을 짐작케 하는 자료이다.

9월 초3일 첩보에 의하면 ‘교룡산성을 수축하던 초기 의승의 인원은 40명이었고, 이를 각 고을에 분정하였다. 중년(中年)에 10명을 줄여 30명이 되었고, 연전(年前)에 또 10명을 감하였다’고 하였다.⁸⁵⁾ 30명이었을 때는 매달 3명씩 돌아가며 번을 썼으며, 10명을 감하여 매달 2명씩 번을 서니 번역(番役)이 몹시 힘들어 원통함을 의승들이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30명으로 원래대로 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보고를 순영에 올렸다. 이에 대

83) 상동

84) 의승번방(義僧番防)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선기,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화와 운영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승군의 확대와 조발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85)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해 관찰사는 ‘승통(僧統)에게 물어서 편한 대로 처리하라’고 판단하였다.⁸⁶⁾ 이후 결과를 전하는 첩보는 없으나 1787년 『호남읍지』에 성내(城內) 거(居)하는 승려가 47인이라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의승의 정액이 다시 초기의 인원 수 대로 복구 또는 더 증가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다.

아울러 승대장(僧代將)이 입번한 의승들의 아침, 저녁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장고(醬庫)의 주관 및 관리는 승장(僧將)이 하여야 했으므로 입번에서는 제외되었다⁸⁷⁾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번을 서는 수첩군관과 입번하는 의승에 대한 기록이 같이 첩보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성의 입번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1735년 11월 당시 첩보에 입번을 빼먹은 박문삼, 박영백 등을 붙잡아 신문(訊問)하고 신장(訊杖)을 가하는 등 치죄하였음을 순영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 당시 입번이 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⁸⁾ 그러나 이 문제는 현감이 순영에 보고하였듯이 수첩군관의 번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추후에 더 검토해 볼 사안이다.

5.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남원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18세기 전기를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지역 산성의 수축 과정과 운영의 실재를 밝히기 위해 첩보류 자

86) 상동

87) 상동

88) 『南原縣牒報移文成冊』 1735년 11월 27일 순영에 보고

료를 활용하여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와 군기의 실제, 그리고 산성 운영의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군현의 군사행정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먼저, 산성 수축의 추이에서는 고려 말 사서에서 교룡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거쳐 빈번한 수축이 있었음과 숙종 대 국방 위기의 고조에 따른 대응으로 거점 산성의 수축과 아울러 교룡산성의 수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성의 군사적 편제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다음으로 남원 관련 각종 읍지들을 통해 산성 내 군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살펴봄으로써 산성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산성의 수성장을 본부사가 겸하고, 그 외 별장, 승장, 대장, 수첩군관, 군병인 삼국보인(三局保人) 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덧붙여 산성 내의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성 운영의 실제에서는 위 각종 기록과 운영상의 차이와 실제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산성 수축의 과정이 문서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둘째, 산성의 경영에 있어 남원현 수령과 별장의 관계, 군기와 집물 보수의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산성 수호의 실제, 즉 입번(入番)의 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본 논고는 첩보자료인 『남원현공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던 남원현 수령의 군사행정을 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reality of Fo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Namwonhyeongongsa(南原縣公事)』 –

Lee, Gyeong-se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Namwon(南原) was a strategic inland military location. Since ancient times, it has received attention as an ancient government facility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was rebuilt several tim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military organization, scale, and practical aspects from a military history perspective regard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

Afterwards, due to the national defense crisis, the fortress was massively rebuilt twice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and Suseongjang(守城將) served as a local governor(守令) and the fortress was considered a base for regional defense.

Looking at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in the 18th century, the Fortress had about 1,000 soldiers, but its character was Sogogun(東伍軍). The Sogogun(東伍軍)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was a Nappogun(納布軍), not a soldier engaged in actual military service. It was a source of finance for the maintenance of the fortress.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ortress, firstly, in the process of fortress construc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Gwanchalsa(觀察使) and Sulyeong(守令) appears in documents and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management of the for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ulyeong(守令) of Namwonhyeon and Byeoljan(別將), the procedures and cases of Gungi(軍器) and Jibmul(什物), in addition, the reality of protecting the fortress, that is, the problem of

Ibbeon(入番), was reviewed in tur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as a case study that helps understand the operation of other local fortresses by examining the actual oper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a local fortress.

Keywords :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Namwonhyeongongsa(南原縣公事), Managemen of Fortress, Fortification(修築), military equipment (軍器)

〈참고문헌〉

1. 사료

『軍國總目』
『南原縣公事』
『南原縣緝報移文成冊』
『大典會通』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龍城誌』
『邑誌』
『朝鮮王朝實錄』
『湖南邑誌』

2. 단행본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 2001.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제사』, 한국군사연구실, 1977.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5.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3. 학위논문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정찬훈, 「南莫山城 義僧軍制의 성립과 운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황부연,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운영의 재정구조」,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연구논문

- 김세중, 「남원 교룡산성의 변천 과정과 고고학적 가치」, 『先史와 古代』 70, 한국고대학회, 2022.
- 문광균, 「조선후기 쌍수산성의 군사편제와 병력운영」, 『사학연구』 121, 한국사학회, 2016.
- 박세연, 「17~18세기 승군역(僧軍役)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방번제(義僧防番錢制)의 시행」, 『불교학보』 9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2.
- 신주엽, 「조선 후기 성주(星州) 독용산성(秃用山城)의 기능과 운영」, 『조선사연구』 31, 조선사연구회, 2022.